

2009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AT) 쭌머인 인권 조사 보고서

2009. 12. 16.

재한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 Korea)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최원근(난민인권센터, NANCEN)

이 보고서는 재한쭌머인연대의 지원으로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이영백(PD, MBC) 및 최원근(난민인권센터)에 의해 200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진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현지 인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체 조사를 지원해주신 재한쭌머인연대와 현지에서 도움을 주신 치타공 산악지대의 Hill Student Council, Hill Women Federation(HWF)과 지역 쭌머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조사의 결과는 MBC "W" 프로그램(2009년 10월 9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문	1
II.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개괄	3
1. 지리적 특징	3
2. 인종 및 문화적 특징	6
3. 정치와 행정	9
4. 역사적 배경	11
III. 토지강탈 문제의 원인과 실태	15
1. CHT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	15
2. 강제 이주로 인한 CHT의 인구증가와 토지 부족 현상	17
3. 토지 강탈 및 토지 강탈에 수반되는 인권 침해	20
4. 선주민에 대한 철저한 주변화 정책	24
5. 평화 협정 이행을 통한 해결 가능성	27
IV. 줌머인들의 인권 실태	30
1. 자의적 체포 및 구금	30
2. 공권력 남용 및 무사	32
3. 여성 인권	34
4. 종교의 자유	37
V. 종합적 평가	39
참 고 문 헌	41

I. 서 문

먼저 성공적으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발표회까지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시민사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재한쭈머인연대(JPNK)와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의 쭈머(Jumma)인들을 대신해서 이 소중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온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의 쭈머인들의 현실이 널리 알려졌다. 11개의 선주민 부족으로 이루어진 쭈머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권리를 향유하며 살고자 투쟁해왔다. 지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후, 치타공 산악지대는 파키스탄에 할양되었고, 치타공 산악지대와 그 거주민들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희생자가 되었다. 1971년의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에는 극단적인 벵갈 민족주의가 쭈머인들에게 강요된다. 쭈머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1977~1979년 사이에 40만 명의 이슬람 벵갈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정부군이 배치됨에 따라 치타공 산악지대는 이슬람화되고 정치적인 불안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이 되었다.

쭈머인들의 수십 년에 걸친 무장 투쟁 후, 1997년 12월 2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쭈머인 무장단체 지도자들과 평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 협정은 치타공 산악지대에 안정된 평화를 가지 오지 못했고 인권을 지키지도 못했다. 지방 정부(지방평의회 이하 CHT Regional Council; RC)를 구성하고, 전 반군 가담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특혜를 주어 고용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평화 협정이 맺어진 이후 지난 12년 동안 거의 이행된 것이 없다. 지방 정부는 몇몇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반면에 정부군과 벵갈리 정착민(Bengali settlers) 거주민들은 쭈머인들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각종 정책과 활동에 간섭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현 정부는 평화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실제 이행 과정은 몇몇 위원회를 재편하고 35개의 임시 군사 시설과 하나의 여단(brigade)을 철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척된 것이 없다. 그리고 군대가 철수하는 대신 경찰 병력이 증원 됐다고 알려졌다. 또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의 인권 유린은 예전처럼 일어나고 있다. 쭈머 선주민이 아닌 벵갈리 정착민(settlers)에 의한 토지 강탈, 그리고 죄 없는 쭈머인들과 그 지역의 쭈머인 정당의 구성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군대의 체포와 고문이 지난 몇 달간 자행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치타공 지역의 인권 상황의 현실을 더 알기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사는 9월 27일부터 추석 전날인 2009년 10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난민들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김종철 변호사,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외딴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담당해 준 이영백 MBC PD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이 세 분의 뛰어난 기여에 감사하며, 또한 줌머인의 인권이라는 큰 뜻을 위해 추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 준 이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한 행정 및 심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조사 팀의 안전 문제를 맡아준 CHT 지역의 Hill Student Council, Hill Women Federation(HWF)과 줌머인 정당들에게도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발표회(2009년 12월 16일)를 후원해준 인권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겨자씨 교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12월 16일은 방글라데시 독립기념일로서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일반 사람들은 사회 및 경제적인 자유와 평등, 정의, 법치, 좋은 거버넌스,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없기에 진짜 독립과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줌머인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줌머인 선주민과 방글라데시 국민들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로넬 차크마 나니 (코디네이터, 재한 줌머인 연대/JPNK)

II. 치타공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개괄

: 지리, 인종, 문화, 행정 및 역사적 배경

1. 지리적 특징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 이하 CHT)는 방글라데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치타공 지대(Chittagong District), 동쪽으로는 인도의 미조람주(Mizoram state), 북쪽으로는 트리푸라주(Tripura state), 남쪽으로는 버마(미얀마)의 아라칸 지역(Arakan region)에 접해 있다. CHT는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평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13,180km²의 넓이에 이른다. 1984년까지 이 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그 이후 카그라초리(Kagrachari), 랑가마티(Rangamati), 반달반(Banderban) 지역으로 나뉘었다.



그림 1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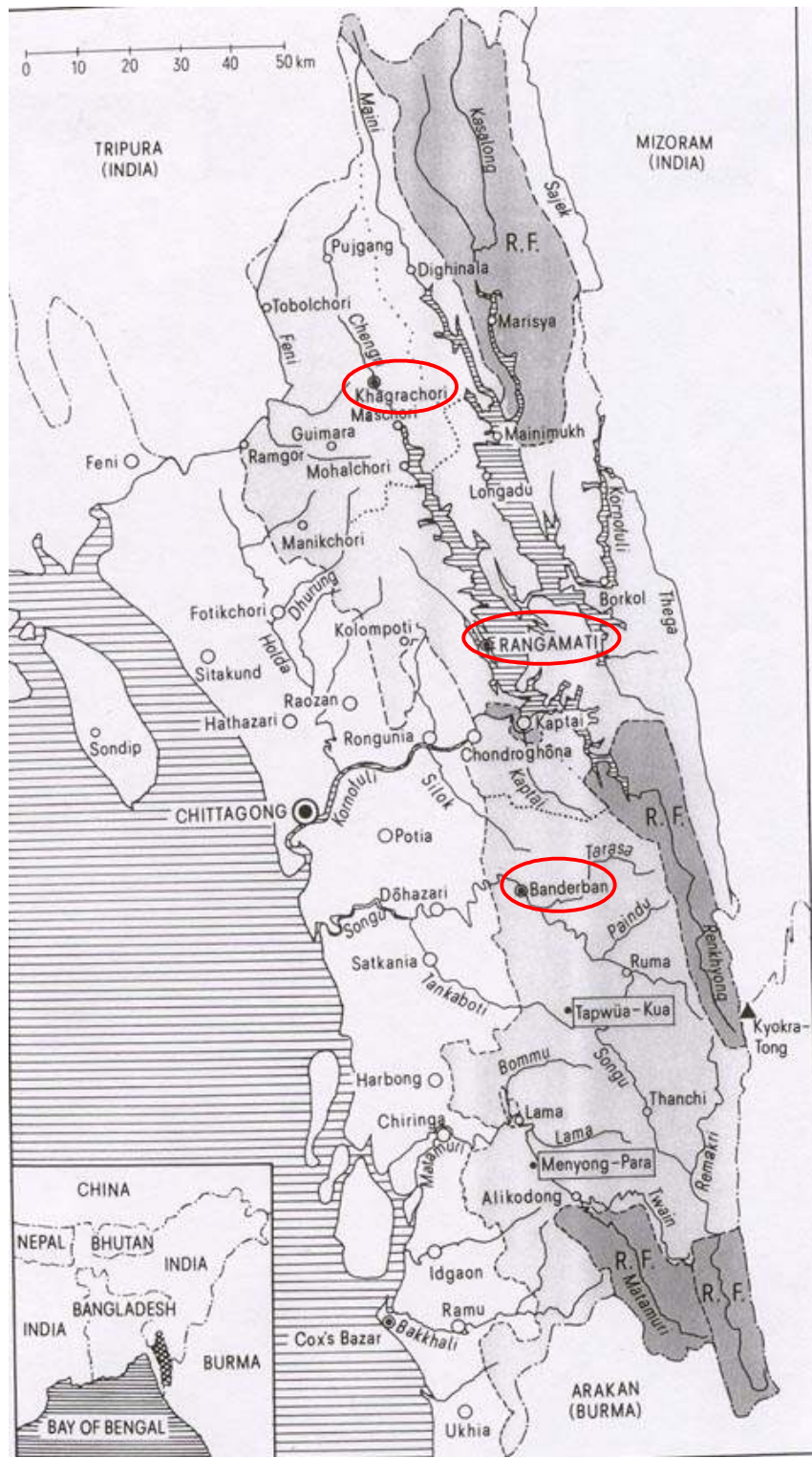


그림 2 CHT 세부 지도

CHT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구릉지대로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지대로 이루어

진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우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CHT의 토지 가운데 단 3.2%만이 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며, 2.9%는 채소나 과일을 가꾸거나 계단식으로 개간을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쌀 농사가 가능하며, 15.5%는 휴지기를 충분히 갖는 경우 채소, 과일 등을 얻을 수 있으며 77%는 삼림으로만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 또한 “1900년 CHT 조례(Chittagong Hill Tracts Regulation of 1900)”가 1928년 개정되면서 CHT 지역에는 산림보호구역이 설정되었고, 이 구역 내에서의 거주와 농경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산림보호구역은 특히 1990년대에 꾸준히 확대되어 이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322,331헥타르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한다.²⁾

CHT의 인구밀도는 1km²당 96명으로 방글라데시 전체의 평균인 827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러한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CHT 지역에는 개간 및 이용이 가능한 토지가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1963년 건설된 캡타이(Kaptai)댐으로 인해 토지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캡타이 댐의 건설은 CHT 내의 농경지의 40%를 수몰시켰으며 약 10만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켰으로써 토지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³⁾ 수몰지구로부터 이주하게 된 주민들은 결국 CHT 내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농지를 찾아야 했으며,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더불어 유입된 벵갈인 이주정책과 맞물려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CHT 지역에는 총 4개의 강이 각각의 계곡 지대를 형성하며 흐른다. 북쪽의 페이(Fei)강과 많은 지류를 가지고 있는 카르나폴리(Karnaphuli)강이 가장 큰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 산구(Sangu)강과 마타무후리(matamuhuri)강이 중부로부터 남부까지 흐르고 있다. 한편 캡타이 댐의 건설은 이 지역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랑가마티(Rangamati)를 중심으로 캡타이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은 과거 주요한 교통로이자 대나무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1) Raja D. Roy, Amena Mohsin, Meghna Guhathakurta, Prashanta Tripura and Philip Ga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fe and Nature at Risk*. Society for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SEHD), 2000, p.3.

2) 위의 책, p.19, 24.

3) 위의 책, p.16, 109.

2. 인종 및 문화적 특징

CHT 지역의 인구는 총 974,445명이며, 이 가운데 501,144명이 선주민이고 나머지인 약 45만 명이 벵갈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1991년 기준). 그러나 이는 약 20년 전 자료로 현재 CHT 지역의 인구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CHT에는 전통적으로 차크마(Chakma), 말마(Marma), 트리푸라(Tripura)를 비롯한 12개의 소수민족⁴⁾들이 선주민으로 거주해왔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일반적으로 몽골계의 인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줌머인(Jumma)으로 불린다. 이들은 외모, 언어, 문화, 종교 등 사회 및 문화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다수 인종인 벵갈리인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족별로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고유의 언어, 종교, 문화 및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언어들은 인도, 버마 등지의 다른 민족들의 언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 민족들은 불교, 힌두교, 기독교 및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한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크마와 말마는 불교를 신봉하고 트리푸라는 힌두교를, 보움과 팡쿠아, 루샤이는 기독교 또는 전통신앙을 믿고, 그 외의 므루와 크후미는 대부분 전통신앙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민족들이 줌머인(Jumma)으로서의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줌(Jhum/ Jum)으로 불리는 독특한 농경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CHT 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져 온 전통적인 줌 경작, 또는 화전이라는 공통의 농경방식이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⁶⁾ 또한 이러한 공통된 농경방식 외에도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되었던 외부적 환경과 196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해 급격히 유입된 벵갈인 정착민들로 인해 이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CHT 지역은 영국 식민당국의 “1900년 CHT 조례”에

4) 이들 소수민족은 차크마(Chakma), 말마(Marma), 트리푸라(Tripura), 무렁(Mrung), 탕찬가(Tangchangya), 보움(Bwm), 팡쿠아(Pangkhuwa), 삭(Sak), 크향(Khyang), 크후미(Khumi), 루샤이(Lushai), 므루(Mru)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라 11개 또는 13개의 부족으로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수민족도 존재한다.

5) Willem van Schendel, Wolfgang Mey and Aditya Kumar Dewa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ving in a Borderland*,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2001, p.147.

6) Raja D. Roy 외, 2000, p.9.

따라 선주민들 이외에는 당국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통행이 허용되는 예외적 지역으로 관리되면서 이 지역의 선주민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산악지역 거주민들 고유의 연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연대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유입된 벵갈인 정착민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줌머인들에게 있어서 CHT 지역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분	랑가마티 (Rangamati)	카그라초리 (Khagrachari)	반달반 (Bandarban)	합 계
Bom/ Bowm	549	-	6,429	6,978
Chak	319	-	1,681	2,000
Chakma	157,385	77,869	4,163	239,417
Khumi	91	-	1,150	1,241
Khyang	525	-	1,425	1,950
Lushai	436	-	226	662
Marma	40,868	42,178	59,288	142,334
Mro/ Mru	126	-	-	126
Murang	38	40	21,963	22,041
Pankhu/ Pankho	3,128	-	99	3,227
Rakhain	70	-	-	70
Tanchangya	13,718	-	5,493	19,211
Tripura	5,865	47,077	8,187	61,129
Others	174	395	229	758
합 계	223,292	167,519	110,333	501,144

표 1 CHT 내 줌머인의 부족별 인구수 (1991년)

※ 출처 : Raja D. Roy, Amena Mohsin, Meghna Guhathakurta, Prashanta Tripura and Philip Ga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fe and Nature at Risk* Society for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SEHD), 2000, p.9.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줌머인들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인구는 차크마, 말마 및 트리푸라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는 지리적인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차크마인들은 랑가마티와 카그라초리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달반에서는 말마가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리푸라 민족은 위의 두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여서 특정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으며, 인도의 트리푸라 주에 가까운 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CHT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카그라초리에서는 이들 세 민족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부에 해당하는 랑가마티와 남부에 해당하는 반달반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수의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1892	1901	1911	1921	1931	1941	1951	1961	1974	1981	1991
인 구	107,286	124,762	153,830	173,243	212,922	247,053	217,188	298,657	391,773	580,218	974,445
증감(수)	-	17,476	29,068	19,413	39,679	34,131	-	81,468	94,585	188,445	394,227
증감(%)	-	16.3	23.3	12.6	22.9	16.0	-	37.5	31.7	48.1	67.9

표 2 연도별 CHT 지역 인구 증감 (1991년)

※ 출처 : Raja D. Roy, Amena Mohsin, Meghna Guhathakurta, Prashanta Tripura and Philip Ga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fe and Nature at Risk* Society for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SEHD), 2000, p.8.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HT 지역의 선주민 사회는 약 10년마다 대략 10~20% 정도의 인구증가를 보여왔다. 특히 이는 “1990년 CHT 조례”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상당부분 차단된 상태에서 CHT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CHT 지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적 이주로 인한 외부 벵갈인들의 유입이 큰 영향을 끼쳤다. 1991년 인구조사에서 벵갈인들은 CHT 전체 인구의 약 48.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47년 기준으로 벵갈인의 비율이 2.5%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렇게 외부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인종적 구성의 변화는 CHT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주도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여전히 선주민 인구가 벵갈인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 및 사업 부문은 벵갈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8), 정치, 행정, 치안 및 군대 역시 벵갈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 위의 책, p.5.

8) 위의 책, p.5.

3. 정치와 행정

1860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벵갈 지역을 합병하기 전까지 CHT 지역은 각 부족장(chief; *raja*)들이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차크마와 보흐몽(Bohmong)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러나 1860년 합병 이후 이 지역에서 근대적 형태의 행정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화된 허가가 없이는 외부인들은 이 지역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HT 지역의 행정체계는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및 인종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CHT 지역의 행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안은 “1900년 CHT 조례”이다. 이 조례는 CHT 지역의 일반 행정, 사법, 토지제도의 골격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등의 권한과 기능,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⁹⁾ “1900년 CHT 조례”는 실질적 행정 및 사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행정관(Deputy Commissioner)을 임명하는 한편 기존의 세 권역을 이장(headman)이 관할하는 373개의 구역(*mouza*)으로 나누었다. 이장들은 대표행정관의 동의 하에 족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들은 다시 각각의 촌락(*para*)으로 나뉘어져서 촌장(Karbari)에게 징세 등의 책임이 맡겨지게 되었다.

CHT는 크게 3개의 행정구역(District)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북쪽의 카그라 초리(Khagrachari), 캅타이 호수 인근 중앙부의 랑가마티(Rangamati), 그리고 남쪽의 반달반(Bandarban) 권역(circle)이다. 이러한 구역의 하부에는 *Mouza*라고 불리는 구역(sub-district)으로 나뉘어져 있다. CHT 지역의 일반 행정과 형사범죄, 재판 등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행정관(Deputy Commissioner; DC, 이하 DC)의 책임 하에 있다. 특히 DC는 1989년까지는 CHT 내에서 내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지역평의회(Hill District Council; HDC)와 지방평의회(CHT Regional Council; RC)의 구성으로 인해 현재는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이 지역의 여러 행정적 권한은 DC, HDC, RC 및 세 족장(chiefs)과 마을 지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DC는 여전히 형사 및 민사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책임자이자 징세를 책임지는 등 지역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CHT 지역의 경찰은 방글라데시 중앙정부의 관할이지만 인사권의 일부는 HDC가 책임지고 있다.¹¹⁾ 이

9) 위의 책, p.44.

10) 위의 책, pp. 46~47.

11) 위의 책, p.47.

지역의 사법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DC가 형사 및 민사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다. 형사의 경우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관할이다. 그리고 족장 및 마을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한 처벌과 구금의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다. 민사의 경우 토지위원회와 CHT 장관이 사안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한다.¹²⁾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와 상관 없이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이 지역의 군사화(militarization)의 영향으로 CHT 지역에서 군부의 역할과 권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부는 이 지역의 행정 및 치안 업무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2007년 선거를 앞두고 1월 11일부터 발효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비상사태 이후에도 지속된 ‘우토론 작전(Operation Uttoron)’을 통해 군부는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행정 및 치안 업무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간섭은 줌머인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¹³⁾

199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CHT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인 CHT부(Ministry of CHT Affairs)가 신설되었으며, 랑가마티, 카그라초리, 반달반의 주지역평의회(Hill District Council; HDC)가 개편되고 CHT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평의회(Regional Council; RC)가 설치되어 DC의 권한이 축소되고 줌머인들의 자치가 일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12) 위의 책, p.48.

13) IDMC(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Bangladesh: Indigenous people and religious minorities still affected by displacement*. 2009. p.8.

4. 역사적 배경

1) 영국 식민지배 시기

치타공 지역은 서기 953년 경 아라칸 왕국에 의해 합병되면서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무굴제국이 CHT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지만, 무굴제국의 치하에서 CHT 지역은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독자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CHT 지역은 1760년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양도되면서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치타공 지역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가 1860년 법(No.22)에 의해 현재의 CHT 지역이 분리되었다. 1868년 영국은 CHT 지역의 모든 토지를 식민당국의 소유로 선언하였고, 1875년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1882년에는 이 지역 산림의 24%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되었다. 또한 1881년에는 CHT 지역의 몽(Mong), 차크마(Chakma), 보호몽(Bohmong) 민족의세 족장(chief)을 중심으로 한 권역(circle)로 나뉘어지는 행정체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00년 CHT 조례”가 제정되면서 CHT 지역의 고유한 권력구조가 근대적 행정체계와 결합되어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00년 CHT 조례”는 전통적인 계급 통치에 바탕을 둔 족장(chief of circles)-이장(headman of mouza)-촌장(karbari or manager of village)의 지배구조를 반영하되 이를 징세와 재정 운영의 권한을 가진 대표행정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CHT 지역의 행정 및 통치 체계를 확립시키게 되었다.¹⁴⁾ 한편 1920년에 이르러 영국 식민당국은 이 지역을 ‘예외 지구(excluded area 또는 backward tract)’으로 선언하여 외부의 뱅갈인 사회와의 분리하여 CHT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구조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2) 동파키스탄 시기

1947년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뱅갈 지역이 동파키스탄으로 독립한 이후, CHT 지역은 파키스탄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의 원조로 1963년 완성된 캡타이(Kaptai) 댐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캡타이 댐은 CHT 지역 중심의 가장 비옥한 토지인 구(舊)랑가마티(old

14) Shapan Adnan, *Migration Land Alienation and Ethnic Conflict: Causes of Poverty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of Bangladesh*, Research & Advisory Services, 2004, pp.21-22.

Rangamati) 지역의 1,036km²를 수몰시켰으며 대부분이 줌머 선주민인 약 10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CHT 내에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캅타이 댐의 건설은 CHT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게는 상업, 운송업, 대부업 등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¹⁵⁾ 그리고 이로 인해 CHT 지역의 인구 구성, 경제구조, 문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들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1962년 이 지역을 '예외 지구(excluded area)'으로 지정했던 법안을 개정하여 '부족 지구(tribal area)'로 변경하여 그 동안 이 지역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던 정책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캅타이 댐의 건설 이후 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외부세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줌머인들의 조직화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1971년 3월, 동파키스탄 지역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파키스탄 정부군과 동파키스탄 벵갈인 반군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2월에 파키스탄 정부군의 항복으로 종식되었다. CHT의 줌머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참여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군을 지원했던 세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동파키스탄의 벵갈인 민족주의 세력들에게 CHT의 줌머인들은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게 되었다.¹⁶⁾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 CHT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3)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

1972년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기반을 가진 신생 정부는 자치를 주장한 CHT 지역 줌머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CHT 지역의 줌머인들은 마나벤드라 마라얀 라마(Manabendra Narayan Larma)의 지도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인 PCJSS(Parbatya Chhatagram Jana Samhati Samity; Chittagong Hill Tracts People's Solidarity Association)을 조직하게 된다. 한편 방글라데시 의회는 1972년 11월, CHT 지역의 특수성이나 줌머인들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PCJSS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신들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973년 1월부터 무장조직인 산티바히니(Shanti Bahini; SB)를 구성하게 되었다.¹⁷⁾

1975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Awami League(AL) 정권이 실각하고 군부가 정권

15) 위의 책, p.24.

16) 위의 책, pp.25-26.

17) 위의 책, pp.26-27.

을 잡게 되자, 새로운 정권은 PCJSS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M. N. 랄마는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 1983년 PCJSS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M. N. 랄마가 암살된 이후 PCJSS는 그의 동생인 J. B. 랄마(Jyotirindra Bodhipriya Larma 또는 Shantu Larma, 이하 상투 랄마)가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인도 정보부로부터 군사훈련과 무기 등을 지원 받은 PCJSS/SB는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1976년 하반기부터 방글라데시 군대에 대한 게릴라 저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CHT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군부대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을 시작함으로써 CHT 지역에서의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4) 평화협정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와 PCJSS 간 협상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결국 1997년 12월 평화협정(The Peace Accord)이 체결되었다.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PCJSS/SB의 항복과 무기반납 절차에 대한 합의, PCJSS/SB 회원 및 협력자들의 사면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인도로 탈출한 CHT 출신 난민들의 본국귀환 지원, 토지문제의 해결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CHT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Ministry of CHT)의 신설, 그리고 CHT 지역의 주지역평의회(Hill District Council; HDC)와 지방평의회(Regional Council)을 각각 개편 및 신설하는 방안도 합의되었다.¹⁸⁾

이 평화협정의 체결로 정부와 PCJSS/SB 간의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제한적이거나 줌머인들의 요구 가운데 일부가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심각한 문제는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협정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이는 평화협정에 반대했던 BNP가 집권한 이후 2008년에 AL 정권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채로 방치되었을 뿐 아니라, CHT 지역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했던 줌머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줌머인들은 프로шит 비카슈 키사(Proshit Bikash Khisa)와 산초이 차크마(Sanchoy Chakma)의 지도 하에 인민연합민주전선(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을 조직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CJSS와 UPDF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⁹⁾

18) 위의 책, p.33.

19) 위의 책, p.34.

또한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PCJSS 이외에 UPDF를 비롯한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대의 주둔을 정당화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면을 거부하고 탄압을 지속하기도 하였다.²⁰⁾ JSS와 UPDF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공격, 협박, 납치, 살인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8년 12월 평화협정의 주체였던 AL이 다시 집권하면서 CHT 지역에서는 평화협정의 적극적인 이행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AL 정권의 평화협정 이행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다고 평가된다. CHT 지방정부 당국은 평화협정이 전면적으로 이행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벵갈인 정착민들과 줌머인들 간 갈등의 핵심인 토지 문제 역시 토지위원회(Land Commission)의 활동을 통해 2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²¹⁾, 새 정권이 출범한 뒤 10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토지위원회(Land Commission)는 정식 사무실조차 개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의 공식회의만을 가졌을 뿐으로 앞으로 토지위원회를 비롯한 평화협정의 이행 및 CHT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20) CHT국제위원회, 피난처(PNAN) 역, “줌머인들의 빼앗긴 삶(Life is not ours): 방글라데시 치타공산악지대의 토지 및 인권문제”, 2000, p.15.

21) CHT 최고행정관(Deputy Commssioner) 인터뷰, 2009. 9. 29.

Ⅲ. 토지강탈 문제의 원인과 실태

: 인구학적 지형 조작에 의한 토지강탈과 선주민의 주변화

1. CHT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

"땅을 빼앗긴 이후에 더 멀리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더 멀리 떨어진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험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 2009. 9. 28. 카그라초리의 신독초리 마을의 Matendo Raltibula의 인터뷰 중에서

"2008년 4월 20일, 벵갈리인 이주민들이 군대의 지원으로 우리 집과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 78가구가 불에 탔습니다...78가족이 집을 잃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나 작은 움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2009. 9 . 29. 랑가마티의 Ananda Chakma의 인터뷰 중에서



그림 3 랑가마티 지역에서 78가구가 전소된 마을의 화재 당시 모습

* 자료: MBC W(2009. 10. 9)

CHT에 살고 있는 줌족들은 197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박해를 피해 국내 외로 피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7여명(난민 신청자 19명)이고 수백명이 프랑스와 캐나다 등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타공 지역 난민에 대한 Task Force의 2000년 통계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28,364 가구가 실향민이 되었고 이는 CHT 인구의 50만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²²⁾ 1973년 무력분쟁이 시작된 이해 인도의 트리푸라 주(州)로 피난을 간 60,000명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1997까지 대부분이 귀환하였지만 귀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방글라데시에서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무엇이 이렇게 오랫동안 줌머인들을 난민과 국내실향민으로 만드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의 지원과 묵인 하에 벵갈리인들에 의한 토지 강탈로 인해 줌머족들이 생계수단과 거주지를 잃을 뿐 아니라 토지 강탈에 수반되는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 강탈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CHT지역 수많은 벵갈리인들을 강제이주 시켜 CHT 지역에 인구 밀도를 높여 CHT내의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방글라데시 정부의 벵갈리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 → CHT지역의 인구 증가 → 토지 부족 → 토지 강탈 및 토지 강탈에 수반된 인권 침해 → 난민과 실향민 발생).

22) IDMC, 2009, p.7.

2. 강제 이주로 인한 CHT의 인구증가와 토지 부족 현상

“이 동네(모마샤)에도 벙갈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우리를 없애려 합니다...방글라데시정부와 군대는 112가구의 벙갈인들을 이 동네에 정착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이주민들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축하거나 집을 보수하거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 나무를 심거나 경작도 못하게 합니다...”

-2009. 9. 29. Sadhna Tila Temple에서 행한 Chirojoyodi Chakma의 인터뷰 중에서

“이 지역의 모든 땅은 우리들 것이었고, 한 때 이 지역을 모두 우리들이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벙갈리 정착민들이 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군인들이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큰 나무들(바나나 등)을 심고 키웠지만, 그들은 보상 한 푼 없이 군인들의 힘으로 땅을 빼앗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2009. 9. 30. 랑가마티의 Naniyachori Sub-District, Doshor Parl town 파인애플 농장의 Sonamugi의 인터뷰 중에서



그림 4 랑가마티 인근 Doshor Parl Town의 파인애플 농장. 줌머인의 경작지였으나 벙갈인 정착민들에게 강탈당하였다.



그림 5 랑가마티 인근 Doshor Parl Town 주민들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HT 지역의 인구변화를 보면 1872년 63,054명에 불과한 CHT 지역의 인구는 1974년에는 508,199명으로 증가하고 1991년에는 974,445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²³⁾

구 분	1872년	1901년	1951년	1956년	1961년	1974년	1981년	1991년
인구수	63,054	124,825	287,688	330,000	385,079	508,199	745,000	974,445

표 3 CHT 지역의 인구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 증가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1970년 이전에도 평야의 벵갈리인들이 CHT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줌 경작을 하던 CHT지역에 논과 밭을 가는 농법이 소개된 이후 줌족 엘리트는 벵갈리인들을 고용하여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벵갈리인들의 CHT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HT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국 평균 인구밀도가 1평방 킬로미터 당 826명인데 비해서 CHT지역은 1평방 킬로미터 당 96명이어서 CHT는 거의 '빈 땅'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평야에 사는 사람들을 소위 '빈 땅'인 CHT에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 이주의 결과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약 40만명의 벵갈리 도시 빈민들이 소위 '빈 땅'인 CHT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CHT는 과연 '빈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구밀도만 보면 빈 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파키스탄 시절인 1960년대에 캐나다 삼림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사에 따르면 CHT에는 단지 3.2%만이 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며, 2.9%는 채소나 과일을 가꿀 수 있으나 계단식으로 개간을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쌀 농사가 가능하며, 15.5%는 휴지기를 충분히 갖는 경우 채소, 과일 등을 얻을 수 있으며 77%는 삼림으로만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⁴⁾

23) Shapan Adam, 2004, p.57.

24) Raja D. Roy 외, 2000, p.3.

게다가 CHT의 많은 부분이 이미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삼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유화가 된 상태였다. 1890년대부터 영국 식민 정부는 CHT의 모든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임지를 산림보호구역(Reserve Forests)과 지역 산림구역(District Forests)으로 구별을 하면서 산림보호구역을 산림부의 관할에 두고 그 곳에서는 쭈 경작을 포함한 어떠한 관습적인 토지 사용도 허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소유로 하였는데 이러한 산림보호구역은 CHT의 24%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또한 1959년 시작하여 1963년에 완공된 캅타이 댐은 CHT 지역의 650 평방 킬로미터를 수몰시켰는데 이는 CHT에서 가장 비옥한 계곡 토지의 40%를 사라지게 하였다.²⁵⁾

이렇게 CHT는 경작 가능한 토지가 적고, 국가 소유지가 많으며 캅타이 댐에 의해 많은 비옥한 토지가 수몰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빈 땅’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40만이 넘는 벙갈리인들을 강제 이주 시킴으로 인해 인구에 비해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벙갈리인들을 CHT는 강제 이주시키면서 현금과 식량 배급은 물론 무료로 토지를 주는 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켰는가?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과 군대를 이용해서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쭈머족들이 거주하고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강탈하여 벙갈리인들에게 주었다.

25) 캅타이 댐으로 인해 평야 지역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까지 전기가 들어갔으나 선주민의 마을에는 정작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Raja D. Roy 외, 2000, p.33.)

3. 토지 강탈 및 토지 강탈에 수반되는 인권 침해

“밤에 아내가 살해되었습니다. 제가 토지 약탈에 대해 여러 기관에 탄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가 아내를 죽인 것 같습니다. 벵갈리인 이주민들 같습니다... 제 아내가 살해된 채 수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후에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군대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당국자들에게도 신고를 했습니다. 의심되는 4명의 벵갈리인들이 있습니다...저는 경찰에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 2009. 9. 28. 카그라초리의 신독초리 마을에 사는 살해 당한 보네마라 트리푸라의 남편 말라비 비송 트리푸라의 인터뷰 중에서

1) 강탈의 대상이 되는 토지

전통적으로 CHT에 사는 줌머인들에게는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 하였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불필요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줌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줌 경작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 화전을 하여 경작을 한 후 그 곳에서 몇 년 동안 휴작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화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줌머인들에게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충분하였고 영구적인 토지에 관한 권리는 불필요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식민지 정부는 CHT의 많은 영역을 국유화 하였을 뿐 아니라 1868년 초부터 농경법이 발달하자 세금으로 인한 재정 충당을 하기 위해 줌 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어 쌀 농사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00년 CHT 규칙에 의해 CHT 지역의 전통적인 관리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토지를 주었다. 따라서 1900년대 초부터 CHT지역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토지 소유권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식민 정부가 지역삼림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 역시 시간이 갈수록 줌머인들의 소유로 바뀌는 예가 늘어났다.

그런데 CHT의 토지 가운데는 국가 소유도 아니고 사인의 소유도 아닌 그런 ‘회색 지역’이 있어 줌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익권(usufruct)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줌머들은 국가 소유도 아니고 사인의 소유도

아닌 이런 용익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냥하고 산림을 채취하고 줌 경작을 하였다. CHT 규칙 역시 줌머인들에게 이러한 '회색 지역'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그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 내지 묵인 하의 이루어진 CHT에 이주한 벵갈리인들의 토지 강탈은 줌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국가 소유도 아니고 사인의 소유도 아닌 줌머인들이 공동으로 용익하는 그러나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이 들어오기 전부터 관습적으로 줌 경작에 이용했던 토지(소위 회색 지역)와 형식상 국가의 소유이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줌머족들이 이용해 왔던 지역산림구역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지역산림구역의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가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이유로 위 토지를 벵갈리 이주민들에게 할당해 주는 것을 정당화 하였다

2) 토지 강탈의 유형 :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중심으로

토지 강탈과 이에 수반되는 인권침해 상황을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유형화해서 살펴보자. 특히 2009년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08년 12월 평화협정 체결 당시의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줌머인들의 인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 국가에 의한 직접적 토지 강탈

* 2007년 1월 11일 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CHT에 주둔한 군부대는 CHT의 북부지방으로 벵갈리인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모든 시위와 집회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선주민들은 이주 정책과 토지 강탈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2007년 3월에는 이미 200가구의 벵갈리인들이 이주해왔고 그들의 안보를 위해 군부대 캠프가 그곳에 세워졌다. 선주민인 줌머인들의 땅을 강탈하여 벵갈리인들이 거주할 집 수백 가구를 지었다.²⁶⁾

* 2007년 6월, 군부대는 선주민 12 가족을 Dantkupa 마을에서 몰아내고 그곳에 200여 벵갈리 가족들을 정착시켰다. 2007년 3월 8일 이미 그 곳에는 군

26) Kapaeeg Foundation, *Indigenous Peoples Human Rights Report in Bangladesh 2007-2008*, 2009, p.25

부대에 의해 캠프가 설치되어 정착하려는 벵갈리인들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다.²⁷⁾

* 2007년 8월 5일 정부 관리가 벵갈리 이주민과 줌머 거주민의 각의 대표를 모아 땅의 분쟁에 대해 회의를 했다. 하지만 줌머인들의 주장은 무시한 채, 관리는 줌머인들에게 며칠 내로 땅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군부대에 의해 벵갈리 이주자들과 줌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위 '평화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이것은 땅 강탈을 계속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한 위원이 밝힌 바 있다.²⁸⁾

* 2007년 12월 8일 군대의 소령은 선주민 추장에게 ugudochari 지역의 불법적 벵갈리 이주 계획에 동의할 것을 협박했다. 이에 대해 선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유효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인 토지 몰수에 따른 피해와 인권 침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²⁹⁾

* 2009년 5월 6일, 선주민 2명이 유괴되고 살해당했다. 또한 20명 이상이 군대에 의해 구금되어 협박과 전기고문을 포함한 고문을 당하고, 소유물을 약탈당했다.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가 5회 일어나자, 결국 선주민들은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³⁰⁾

나. (국가의 지원과 묵인에 의한) 벵갈리인들에 의한 토지 강탈

* 2008년 4월 20일 밤 방글라데시 군부대의 직접적 지원을 받은 벵갈리인들이 sajek 지역의 줌머 7 마을을 4시간 동안 공격했다. 76가구가 전소되었고, 벵갈리인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줌머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또한 줌머인들의 귀중품을 약탈했다. 벵갈리인들이 공격하는 동안 군대는 이들의 방화를 막지 않고 오히려 방화가 진행될 수 있게 주위를 감시했다. 오히려 이주민들의 집에 방화한 혐의로 선주민 4명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주민들은 추가적인 인권침해와 피해를 두려워하여 숲 속으로 대피했다. 식량이 없어 수일 동안 굶기도 했다. 이에 Hill District Council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대 지휘관에게 주었지만, 선주민들은 보복을

27) 위 보고서, p.25.

28) 위 보고서, p.26.

29) 위 보고서, p.38.

30) The Daily Star, Friday, 3 July 2009

두려워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러 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상금은 오히려 벵갈리인들에게 돌아갔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공격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공격 이후에 벵갈리인들은 재를 치우며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줌머인들은 추가 공격을 두려워하며 땅을 뺏긴 채 실향민이 되어 인근 숲 속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³¹⁾

* 앞에서 언급한 sajek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상금을 배분한 후 돌아오던 인권활동가 Ms. Sultana Kamal을 벵갈리 이주민들이 1시간동안 봉쇄하여 소리치고 차에 벽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로 차를 끊었다. 군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관리들이 오히려 벵갈리 이주민들이 그녀를 봉쇄하는 것을 부추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³²⁾

31) 위 보고서, p.42.

32) 위 보고서, p.50.

4. 선주민에 대한 철저한 주변화 정책

“누구도 이 지역의 선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주민이다. 부족민들 역시 선주민은 아니다. 부족민들은 200년 전이 이주해 왔고 벵갈리인들은 50년 전에 이주해왔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들을 다시 이주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제는 토지인데, 토지를 정착민과 부족민 사이에 올바르게 분배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2009. 9. 29. 카그라초리 Deputy Commissioner인 Muhammad Abdullah가 정부가 평화 협정에서 정부가 구두로 약속한 대로 벵갈리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한 대답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에 이 지역 선주민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벵갈리인들이 우리를 CHT에서 소수로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이주되고 있습니다. 경작지를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인종청소입니다.”

-2009. 9. 29. Sadhna Tila Temple에서 행한 Chirojoyodi Chakma의 인터뷰 중에서



그림 6 Sadhna Tila 주민들이 줌머인의 토지강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CHT 지역에서 대량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벵갈리인들을 CHT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였고 토지 부족하게 되었으며 토지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 내지 묵인 하에 벵갈리인들에 의한 토지 강탈과 이에 수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왜 그 많은 벵갈리인들을 CHT에 강제 이주 시켰는가? 방글라데시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인구밀도가 높은 평야 지역의 사람들을 ‘빈

땅'인 CHT에 이주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지역의 인구학적인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주류 벵갈리 족과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줌머 선주민을 철저하게 주변화 시키기 위해 40만이 넘는 벵가리인들은 이주시킨 것이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CHT의 줌머족들은 CHT지역이 독립된 지역으로서 헌법상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1972년 방글라데시 헌법은 방글라데시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벵갈리인들의 나라'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줌머인들의 이러한 자치권에 관한 주장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인도의 주(州)가 누리는 자치권의 수준을 보장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영국 식민 시대 부터 1900년 CHT 규칙 등에 의해 보장을 받아 왔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아무나 CHT에 출입하고 거주할 수 없었는데, CHT 규칙 52는 Deputy Commissioner의 허가 없이는 산 사람이 아닌 사람(non-hillman)은 CHT에 들어가거나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1920년 개정된 CHT 규칙 34에 의해 토지를 '외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단지 임대하는 것만 가능하였는데 그것도 그 외부인이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CHT의 자치적인 요소는 점차 줄어들어 외부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CHT 규칙 34도 1971년 개정되어 세무서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외부인도 CHT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오면 이러한 자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 CHT 규칙 34는 CHT에서의 토지 소유는 적당한 사람(deserving person)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CHT지역의 토지 소유에 관해서 외부인에게 부과된 제한은 모두 철폐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치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무력투쟁을 벌이는 CHT 선주민을 철저하게 주변화하여 통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벵갈리인들을 CHT지역에 강제이주 시키는 인구학적인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학적인 조작의 사전 작업으로 CHT 규칙을 개정해 왔으며 1979년 개정으로 토지 소유에 관한 모든 제한이 철폐된 후부터 1983년까지 4년 사이에 벵갈리인 40만명을 CHT로 이주시켰는데 이로 말미암은 CHT의 인구학적 지형 변화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 도(년)	쥬머인(%)	벵갈리인(%)
1941	98	2
1951	91	9
1961	88	12
1974	77	33
1981	59	41
1991	60	39
2003	51	49

표 4 CHT의 인구학적 지형 변화

따라서 수많은 쥬머인들이 난민과 실항민으로 전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변화 하여 통치하기 편하게 만들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고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도시 빈민들인 벵갈리인들을 CHT에 강제로 이주시켜 인구학적인 조작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서 쥬머인들이 경작해온 토지를 강탈하여 그 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선주민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태도 → 벵갈리인의 강제 이주를 통한 CHT지역의 인구학적 조작 → 직간접적인 선주민의 토지 강탈 → 난민과 국내 실항민으로 전락 → CHT지역에 대한 통치 용이).

CHT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가 선주민을 주변화 하려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1년 헌법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쥬머인들에 요구에 대해 방글라데시 헌법은 방글라데시를 벵갈리의 나라라고 규정했으며, 1975년에는 심지어 이슬람의 나라라고 까지 하였다. 또한 CHT에서 일하는 NGOs 중 외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는 경우 Ministry of CHT affairs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NGOs의 사업 제안서 중 선주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인 증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쥬머 선주민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벵갈리인들을 CHT지역으로 거주시키면서 CHT 지역을 ‘빈 땅’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부른 terra nullius를 떠오르게 한다. 영국이 방글라데시 지역을 terra nullias라고 부르면서 식민지화 하였다면, 이제 방글라데시는 CHT을 ‘빈 땅’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쥬머 선주민들을 주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5. 평화 협정 이행을 통한 해결 가능성

“내 생각에 당신은 부족민들의 입장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벵갈리인과 소수민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룬다. 내가 DC로 있는 이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왜 부족민들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009. 9. 29. 카그라초리 Deputy Commissioner인 Muhammad Abdullah가 줌머인들은 토지 분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벵갈리 이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 피해를 받고 있는 줌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



그림 7 카그라초리의 최고행정관(Deputy Commissioner) Muhammad Abdullah

줌머인들과 방글라데시 정부 사이의 무력 분쟁을 종식시킨 1997년 평화 협정에 따르면 Regional Council로 하여금 CHT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CHT내의 지역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CHT내에서 이주, 토지의 양도, 임대, 강제 수용을 금지하였다.³³⁾ 또한 토지 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인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무효화할 전권을 받았고 CHT내의 모든 토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Regional Council은 1998년 세워졌으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없었으며 Regional Council과 지역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가 아닌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왔다. 토지 위원회는 1999년 세워져 2003년 35,000건의 사건을 벵갈리인과 줌머인들로부터 접수를 받았으나 2009년 10

33) 위 평화 협약 제26조(1)은 랑가마티, 카르라치리, 반다르반의 Hill District Council의 동의 없이 증여, 매매,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월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군대의 지원과 묵인 하에 토지 강탈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위 평화 협정을 체결 할 당시 정부를 구성한 아와미 리그가 2008. 12.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고 여러 차례 위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공표한 바 있으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아와미 리그가 집권한 2009년에도 평화 협정 체결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토지 강탈과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³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와미 리그 정권은 국제적인 압력과 투자 유치 때문에 평화 이행 협정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실제로 평화 협정을 이행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와미 리그 정권이 평화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CHT의 문제 특히 토지 강탈의 문제가 해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걸림 돌이 있다.

첫째 현재 야당인 Bangladesh Nationalist Party(BNP)의 지속적인 반대가 예상된다. 지난 12년간 평화 협정을 무력화 시켰던 위 정당은 2009년 평화 협정에 따라 CHT내의 임시 초소를 철수하려는 시도를 벵갈리인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저지한 바 있다.

둘째 선주민들에게는 벵갈리 이주민들과는 달리 토지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토지 위원회가 토지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선주민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선주민들은 토지에 관한 문서 없이 심지어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개념 없이 관습적으로 CHT 지역에서 토지를 사용해왔으나 근대법은 합리성을 가장하여 자의적으로 CHT 지역에 소유권을 만들어 식민지 정부와 이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 국가에 주었고 국가는 또 그 일부를 벵갈리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토지 위원회는 CHT 지역의 토지 분쟁을 해결하면서 결국 자의적으로 줌머인들의 토지를 빼앗았던 그 근대적인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³⁵⁾

셋째 토지 강탈을 당한 선주민들은 토지 위원회 등 당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산악 지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토지가 강탈 되었다고 하면

34) IDMC, 2009, p.7, p.11.

35)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로는 관습법적인 권리와 문서로 인정된 토지 소유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효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시효 취득을 인정할 경우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관습적인 권리 내지 시효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사건을 접수할 때 가해자인 벵갈리인들이 그렇게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이유로 오히려 줌머인들을 고소하고 폭행, 강간 심지어는 살해를 하여 사건 접수 자체를 좌절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행정·사법 당국은 이러한 보복 피해를 받은 줌머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벵갈리인들의 위와 같은 인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평화 협정 자체에 문제가 많다. 우선 위 협정은 제3자, 특히 국제사회의 관여 없이 PCJSS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행을 담보할 만한 기제가 부족하다. 또한 줌머인들이 무기를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과 트리푸라에 피난을 간 난민들이 귀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행 기간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없었다. 또한 1997년 이전에 벵갈리인들과 군인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줌머인들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규정이 전무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 평화협정은 CHT의 줌머인들의 자치권 보장에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아와미 정권하에서도 우리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선주민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해결 노력도 미봉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치권을 얻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략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체결하고 국제사회에 한 이행하기로 약속한 평화협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특히 토지 위원회를 통해 선주민들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줌머인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다해야 하나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되고 방글라데시가 선주민에 대한 식민 시대에 물려받은 시각에서 벗어나 최소한 인도의 각 주가 누리는 정도의 자치권을 CHT의 줌머인들이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국은 CHT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투자를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EU은 투자를 유인책으로 해서 평화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CHT의 상황과 관계없이 방글라데시의 최대 투자국,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CHT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박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IV. 줌머인들의 인권 실태

: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및 종교의 자유

CHT 지역의 인권침해는 동파키스탄의 독립 이후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불러왔다. 그리고 2007년 1월 11일 선언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후 다시 한번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되었지만 CHT 지역에서는 군부가 ‘우토론 작전(Operation Uttoron)’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행정에 대한 간섭을 지속하고 있으며³⁶⁾, 줌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군대와 경찰에 의한 불법적 처벌, 자의적인 구금 및 공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³⁷⁾ 또한 줌머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성폭력의 만연 역시 심각하며 이는 줌머인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교적 자유의 제한과 차별 또한 주요한 인권문제라 할 수 있다.

1.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군대와 경찰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무장세력에 대한 체포와 연관되어 있다. 즉, PCJSS나 평화협정에 반대했던 정치세력, 특히 UPDF에 대한 수색 및 조사를 이유로 하거나 무기은닉 등의 혐의를 씌워 체포 및 구금을 자행하는 형태이다. 2007년 부터 시작된 국가비상사태 이후 최소한 2명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살해되었으며 50여 명의 줌머인 활동가들이 체포되었고, 20여 명의 민간인들 역시 체포나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⁸⁾

비상사태가 종식된 현재에도 이러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은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줌머인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와 박해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구금시 폭행,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가 수반되고 있다.

36) IDMC. 2009, p.8.

37) Kapaeeg Foundation, 2009, p77 참조.

38) 위의 책, p.78.

2009년 9월 25일, Laxmichari 지역의 상점 주인인 타이푸치 말마(Typuchi Marma, 30)를 비롯하여 롯너빈두 차크마(Rotnobindu Chakma, 32), 니오라푸르 말마(Niolapru Malma, 35), 옹 사푸르(Ong Shapru, 26)는 갑작스런 군인들의 습격을 받았다. 군인들은 이들을 폭행한 뒤, 군부대로 끌고 가서 구금하고 폭행을 하면서 로키초리 마을의 UPDF 소속인 사람들에 대해 심문을 했다. 군인들은 이들을 햇볕 아래에 3시간 가량 세워놓거나 전기를 이용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석방되었으나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와 고문에 대해 발설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 2009. 9. 29 라흐미차리 지역 상인들 인터뷰 요약



그림 8 군대에 의해 전기고문을 당한 롯 로빈두 차크마



그림 9 구타당한 자국을 보여주는 타이푸치 말마

2. 공권력의 남용 및 무사(impunity)

CHT 지역은 산악지대일 뿐 아니라 줌머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촌락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³⁹⁾ 이에 따라 많은 촌락에서 경찰 및 행정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작용하더라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벵갈인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경찰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같은 벵갈인 정착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증거 및 정황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줌머인들이 군대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벵갈인 정착민들에 의한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여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작하여 줌머인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난다 차크마(Ananda Chakma)씨는 랑가마티의 바가에초리(Baghaichari)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마을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정착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2008년 4월 20일, 군인들의 지원을 입은 벵갈인 정착민들이 그의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에 불을 질렀다. 마을 주민들이 이들과 맞섰으나 오히려 군인들이 줌머인 주민들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며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78가구가 불에 탔고 17명의 남성들이 체포되었다. 시카라니 차크마(Shikharani Chakma)의 남편을 비롯한 몇몇은 체포를 피해 숨어 지내다가 2009년 5월 8일 적발되어 구금되었다. 2009년 9월 현재까지 모두 5명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 2009. 9. 29 랑가마티의 Ananda Chakma 인터뷰 요약



그림 10 벵갈인 정착민들에 의해 집이 불에 탔으나 오히려 방화범으로 몰려 체포되었던 아난다 차크마

39) 1991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줌머인의 20%(99,189명)만이 도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80%(401,055)명은 촌락에 살고 있다. (Raja Devasish Roy 외, 2000, p.8 참조.)



그림 11 방화범으로 몰려 체포된 남편이 아직까지 구금되어 있는 시카라니 차크마

투크무니 차크마(Tukmuni Chakma, 30)는 2007년 경 벵갈인 정착민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정착민들은 투크무니씨를 죽창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 등의 흉기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투크무니씨가 먼저 그들을 공격하였다고 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공정한 수사과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09. 9. 28 Tukmuni Chakma 인터뷰 요약



3. 여성 인권

쥬(jhum) 경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쥬머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⁴⁰⁾ 이는 노동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외부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나타난 CHT 지역의 경제구조 및 사회·문화적 변화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쥬머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쥬머족 여성들은 이 지역에 진주한 군대와 벙갈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부당한 무사(impunity)는 매우 심각하다. 쥬머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주요한 것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경찰의 부패, 증거의 조작이나 훼손, 법률에 대한 무지와 의료적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⁴¹⁾

CHT 지역 쥬머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폭력, 특히 군대와 경찰 및 벙갈인 정착민들에 의한 강간 문제이다. 1990년 인도의 난민 캠프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CHT에서 탈출한 전체 여성 난민의 10%가 강간의 피해자였으며, 이 가운데 94%가 군대에 의한 문제였고, 40% 이상이 18세 미만이었다.⁴²⁾ 이로 인해 전투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는 쥬머 여성들은 군대와 경찰에 의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쥬머 전통의상을 입지 않을 정도⁴³⁾였고 사회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1997년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경찰과 벙갈인 정착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쥬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호감호'의 명목으로 구금을 당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⁴⁴⁾ CHT 국제위원회(The Chittagong Hill Tracts Commission)은 2003년 보고서에서 1998년 6월 28일 쿠쵸룽 트리푸라(Kucharung Tripura)라는 13세 소녀가 세 명의 벙갈인(Abdul Khalek, Hamidulla and Salamat Ulla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7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례를 실례로 들었던 바 있다.

40) IDMC, 2009, p.9.

41) Kapaeeg Foundation, 2009, p129.

42) Human Rights Watch, leaflet, 1995. Raja D. Roy 외, 2000, pp.79-80에서 재인용.

43) CHT 국제위원회, 2003, p.33.

44) 위 보고서, p.33.

이렇게 및 경찰과 벵갈인 정착민들에 의한 성폭력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⁵⁾

카그라초리의 보라담(Boradam) 마을에 거주하는 미나 차크마(Meena Chakma, 24)는 5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녀가 2009년 7월 31일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라민 은행에서 일하는 노줄 하산(Nazul Hasan)이 물을 한 잔 달라며 방문했다. 집에 그녀 혼자만 있는 것을 본 노줄 하산은 그녀를 폭행한 뒤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하였다. 미나 차크마는 월경 중이었으며, 과도한 출혈로 인해 강간을 당하던 중에 정신을 잃었다. 약 30여 분 후에 부모에 의해 발견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권유한채 범인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9. 9. 29 Meena Chakma 인터뷰 요약

카그라초리의 신독초리(Sindokchari) 마을에 살고 있는 마네말라 트리푸라(Manermala Tripura, 18세)는 2009년 9월 13일 정오 무렵,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점심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바구니에 식사를 담아서 아버지의 밭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가의 덩굴 사이에서 벵갈인 정착민인 가해자 알롱기(Alongi)가 나타나 강간을 하려 했으나 격렬히 저항한 끝에 하의가 벗겨진 채 도망쳤고, 다시 가해자가 따라와 강가의 수로에서 폭행을 가한 뒤 강간을 했고, 이후 나무로 폭행을 하며 증거인멸을 위해 마네말라를 살해하려 하였다. 뒤늦게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뒤 가해자는 도망쳤고,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 2009. 9. 28. 카그라초리의 신독초리 마을 마네말라 트리푸라 인터뷰 요약

마네말라 트리푸라의 어머니는 벵갈인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살기 시작한 뒤 이런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줌머인 여성들은 집 밖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할 지경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보복수단으로 활

45) Kapaeeg Foundation, 2009, pp.130-136.

용되기도 한다. 즉, 토지약탈과 관련하여 뺑갈인 정착민들에게 불리한 소송의 당사자 등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가족 또는 마을의 여성들에 대한 강간 등을 저지르는 것이다.

2009년 9월 3일, 신독초리(Sindokchari) 마을에 사는 보네말라 트리푸라(Bonemara Tripura)가 밤 사이에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가족 소유의 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갔던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혼자 줌의 임시 숙소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마을에서 불일을 보느라 시간이 너무 늦자 하루 밤을 마을에서 보낸 뒤 부인이 기다리는 줌으로 일꾼들과 함께 갔으나, 줌에 도착하자 줌 인근의 수로에 부인의 시체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최근 자신의 줌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에 얽혀 있는 뺑갈인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09. 9. 28. 카그라초리의 신독초리 마을 말라비비송 트리푸라 인터뷰 요약

위의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뺑갈인들에 의한 줌머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사법 당국의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토지강탈로 인한 분쟁의 발생시 줌머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줌머인 당사자들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과거 CHT 지역에서 내전이 격렬하게 발생하였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는 과거와 같이 줌머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군대와 경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의 방조 하에 뺑갈인 정착민에 의한 줌머인 여성의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4. 종교의 자유

방글라데시는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이슬람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CHT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상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불교를 믿는 줌머인들은 벵갈인들의 차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007년 7월에서 2008년 4월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종교적 억압으로 인해 58명이 살해되고, 사원에 대한 습격과 점거가 52회, 39건의 토지강탈 및 13건의 강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특히 CHT 내에서 일부 종교 시설들(불교 사원)은 정착민들의 습격과 시설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의해 증축이나 보수 등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일부 지역의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정확한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9월 1일 정오, 일단의 군인과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은 벵갈인 정착민들이 사드하나 툴라 사원(Sadhana Tila Temple)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이 사원의 현판을 떼어내어 파괴한 뒤 이곳의 승려들에게 사원을 떠날 것을 협박하였다. 그 후 9월 1일과 2일에 걸쳐 이들은 사원 인근의 줌머인 가옥들을 파괴하였다. 이에 앞서 2007년 8월 13일부터 이 지역의 800여 명에 이르는 정착민들은 군경의 지원을 받아 토지 점유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승려와 지역 줌머인들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정착민들과 줌머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다.⁴⁷⁾

현재 사드하나 툴라 사원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모든 보수와 증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아래 사진 참조), 외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46) 위의 책, p.120.

47) 위의 책, p.122-123.



그림 16 사드하나 툴라 사원의 승려들이 임시 가건물에 앉아 있다.



그림 17 사드하나 툴라 사원의 불상이 건축이 중단된채 방치되어 있다.

V. 종합적 평가

: CHT 줌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T 지역은 매우 독특한 인종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및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 백 년 이상 거주해온 줌머인들 또한 방글라데시 내에서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특성을 지닌 12개(또는 11개)의 소수민족이 산악과 정글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에 특화된 토지경작 방식인 줌(jhum) 경작을 통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줌머인들의 현재는 다양성 속에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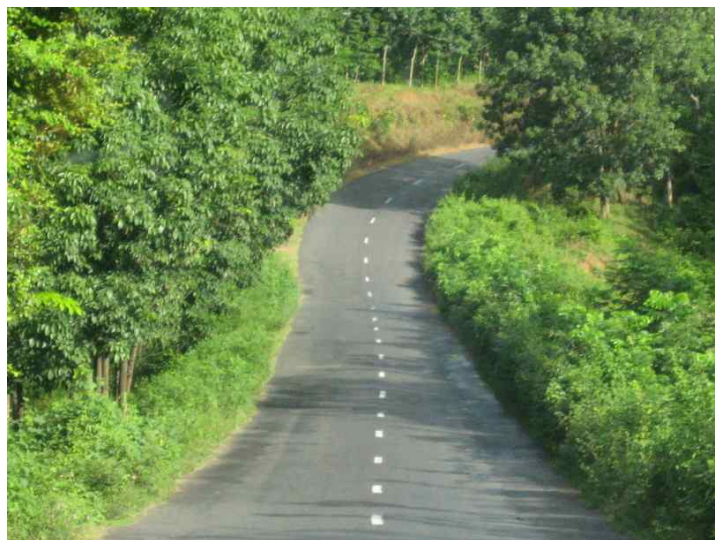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진행된 개발계획과 이주 정책 그리고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CHT 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권이 모두 파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캅타이댐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과 그에 따른 전통적인 농경지의 상실, 그리고 이어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이주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인구로 인해 이 지역의 전통적인 경제체계가 붕괴되었다. 농업을 위주로 하던 선주민인 줌머인들과 새로 이주해온 벙갈인 사이에 농경이 가능한 소수의 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군대의 지원을 받는 벙갈인 정착민들에 의한 토지 강탈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는 수 만 명의 줌머인들이 외국으로 탈출하여 난민(refugee)이 되거나 CHT 내에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수 백년 간 자율적인 통치체계를 향유해온 CHT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강요된 벙갈인들의 민족주의적 통합시도는 20여 년에 걸친 무장투쟁을 불러온 바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러한 벙갈인들과 줌머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봉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CHT 내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줌머인에 대한 차별과 주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군부에 의한 개입과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대와 경찰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공권력의 남용과 무사(impunity) 그리고 벙갈인 정착민에 의한 여성인권침해와 종교적 차

별과 박해는 이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CHT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인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행정관(DC)을 비롯한 민간 행정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줌머인들의 여러가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유로 벌어지는 군부의 정치적 개입과 인권유린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지역 줌머인들은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와 완전자치의 요구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놓고 PCJSS와 UPDF라는 두 개의 정치세력을 형성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들 사이에는 심각한 분쟁과 투쟁이 벌어졌었으나, 최근 이러한 투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PCJSS 내의 파벌간 갈등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줌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화협정과 자치요구에 대한 줌머인들의 정치적 입장과 요구를 PCJSS와 UPDF가 어떻게 조정하고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줌머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dnan, Shapan. 2004. *Migration Land Alienation and Ethnic Conflict: Causes of Poverty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of Bangladesh*. Research & Advisory Services.

CHT국제위원회(The CHT Commission), 피난처(PNAN) 역. 2000. “줍머인들의 빼앗긴 삶(Life is not ours): 방글라데시 치타공산악지대의 토지 및 인권문제”.

IDMC(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2009. *Bangladesh: Indigenous people and religious minorities still affected by displacement*.

Kapaeeg Foundation. 2009. *Indigenous Peoples Human Rights Report in Bangladesh 2007-2008*.

Kharat, Rajesh S. . 2003. *From Internal Displacement to Refugees : The Trauma of Chakmas in Bangladesh*. Research Paper presented at Researching Internal Displacement: State of the A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DPs on 7-8 Feb. 2003, Trondheim, Norway

Raja Roy, D., Amena Mohsin, Meghna Guhathakurta, Prashanta Tripura and Philip Gain. 2000.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fe and Nature at Risk* Society for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SEHD).

Schendel, Willem van, Wolfgang Mey and Aditya Kumar Dewan. 2001. *The Chittagong Hill Tracts: Living in a Borderland*, The University Press Limited.